

노동정책연구

2002. 제2권 제2호 pp.69~87

© 한국노동연구원

특 집

노동시장의 고령화와 업종· 직종에서의 연령분리현상*

박 경 숙**

이 연구에서는 노동시장내 연령차별 구조의 시기적 변화에 초점을 둔다. 구체적으로 연령별 직종분리지수를 구하여 1980년에서 2000년 기간 사이 노동시장의 연령차별화가 직종·업종별로 어느 정도 심화, 완화되었는가를 분석하고 있다. 분석을 위하여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집합자료(aggregate data)와 인구 및 주택총조사의 2% 표본자료를 이용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문·기술직에서의 연령분리현상은 최근으로 올수록 강화되고 있다. 행정·관리직에서 청장년층에 대한 55세 이상 고연령층의 비는 전체 평균 분포보다 크지만 최근으로 올수록 연령분리 정도가 완화되고 있다. 사무직에서 고연령층 비율은 전체 분포에 비하여 과소 반영(under represented)되어 있으며, 그 경향은 지속되고 있다. 판매서비스직의 과다 반영(over-representation) 경향은 최근으로 올수록 심화되고 있다. 고연령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단순노무직에서는 고연령층의 비중이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난 20년 동안 직종·업종별로 다양하게 전개된 연령분리현상은 전체적으로 고연령층의 취업기회를 주변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핵심용어 : 연령분리, 연령별 직종·업종분리, 노동시장의 고령화, 요인분해

I. 머리말

경제활동참여율이나 취업률을 살펴보면, 우리 사회 고연령층의 취업기회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높은 듯이 보인다. 1995년 세계 노인비교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

투고일: 2002년 6월 10일, 심사의뢰일: 2002년 6월 10일, 심사완료일: 6월 19일.

*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익명의 논평자에게 감사드립니다.

** 동아대학교 사회학과(pks0505@mail.donga.ac.kr)

인의 취업률이 미국 23.5%, 독일 6.8%, 일본 43.6%, 한국 33.6%로서 한국은 일본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높은 고연령층의 취업률을 유지하고 있다(日本總務處, 1997).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서도 노인의 취업률이 높게 나타나는데 1998년 65세 이상 노인의 29%가 경제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정경희 외, 1998).

그러나 고연령층의 취업 생활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높은 취업률이 반드시 좋은 노동조건을 반영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같은 조사를 기초로 1998년 취업 노인의 분포를 도시·농어촌으로 구분해 보면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의 취업률은 17%인 반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의 취업률은 49%로 나타난다. 노인 취업자의 직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농업 및 어업 종사자가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단순노무직, 판매직의 비율이 높다. 전문직이나 행정직의 비율은 다 합쳐 봐야 10%를 넘지 못하고 있다(정경희 외, 1998).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1998년 취업 노인의 3분의 2가 비임금근로자로서 그 대부분이 농업부문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과 무급가족종사자로 구성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안정된 1차 노동시장 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고연령 취업자는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우리 사회 고연령층의 취업률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높은 편이지만, 대부분의 취업업종이 농업부문이나 비정규직 등 한계 수입이 떨어지고 신체적 부담이 큰 직업의 특성을 띤다.

그렇다면, 왜 많은 고연령층의 경제활동이 전통적이거나 주변적인 지위에 제한되고 있는가? 이에는 세대효과, 노동시장의 연령차별구조와 같은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박경숙, 2001, 2000). 다시 말하여 현재 고연령층의 대다수는 교육수준이 낮으며, 다양한 직업구조에 적합한 노동 경력을 갖지 못한 세대 특성을 지닌다. 또한, 노동시장의 연령차별구조의 결과 고연령층 노동은 명예퇴직, 조기퇴직 등 강제적 정년 규제에 의하여 공식 부문에서 조기에 배출되고, 재취업기회가 크게 제약받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연령차별화의 시기적 변화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다시 말하여, 지난 몇십년간 산업, 직업구조가 크게 변화되는 과정에서 연령별 직종·업종 분리현상이 시기적으로 완화 혹은 강화되었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는 크게 세 주제로 이루어졌다. 첫째 1980년에서 2000년 기간 사이 경제활동인구 크기의 변화를 연령집단별로 비교하였다. 또한 경제활동인구 크기의 변화를 인구 크기의 변화에 따른 효과와 경제활동참여율 변화에 따른 효과로 분해하여, 각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였다. 둘째, 동 기간 55세 이상 고연령층의 경제활동 기여도와 취업률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셋째, 1980년에서 2000년 기간 사이 노동시장의 연령분리 정도가 어느 정도 심화, 완화되었는가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발표 자료와 인구 및 주택 총조사 2% 표본 자료를 이용하였다.

II. 경제활동인구 구성의 변화

우리 사회의 경제활동인구는 1960년대 이래 꾸준히 증가하여 왔다. 1980년에서 2000년 사이 다소 단기간의 변화에 초점을 둘 때 경제활동인구가 가장 크게 증가한 시기는 1985년에서 1990년 사이로 이 시기의 경제활동인구는 2,948천명으로 증가하였다(표 1).

경제활동인구의 증감 경향은 연령집단별로 차이가 존재한다. 15~19세 연령집단에서 경제활동참가인구는 지난 20년 동안 계속 감소되어 왔다. 20~34세의 청년층에서 경제활동참가인구는 1985년에서 1995년 사이에는 증가하였지만, 1995년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35세 이상 연령집단에서 경제활동인구는 매 5년 기간마다 증가추이를 나타내었다. 경제활동인구가 가장 크게 증가한 연령집단은 40~44세, 35~39세, 그리고 60세 이상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별 경제활동참가인구의 변화를 비교해 보면, 1985년에서 1990년 사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크게 증가한 현상에 주목할 수 있다. 이 시기 여성 경제활동인구의 증가량은 남성의 경우를 앞서고 있다.

<표 2>에서는 1980년에서 2000년 사이 경제활동인구 크기의 변화를 조성한 효과를 인구 요인과 그 외의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각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를 비교하고 있다. 인구 요인과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한 변화량을 분해한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우선 2000년 각 연령집단의 인구에 1980년도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을 적용하여 경제활동참가율이 변하지 않았다고 가정하였을 때 예상되는 2000년도 경제활동인구수를 추정한다(B^s). 이렇게 추정한 인구와 1980년도의 경황인구의 차이(D)는 두 시기 사이 인구 크기 변화 때문에 발생한 변화량으로 간주할 수 있다(인구효과).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한 변화량(E)은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 때문에 이루어진 변화량으로서 1980년과 2000년 사이 경황인구의 순변화량(C)에서 인구 요인에 의해 조성된 변화량(D)을 뺀 잔여값을 가리킨다. 표의 마지막 두 칸에는 인구 요인과 사회적 요인의 상대적 기여도를 백분율로 제시하고 있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980년과 2000년 기간 사이의 경제활동인구 크기 변화(7,518천명의 증가)는 주로 인구 요인에 의해 설명된다. 총변화량의 94.6%가 인구 크기 증가에 따른 변화이다. 연령집단별로 살펴보더라도 15~24세 연령집단을 제외한 모든 연령집단에서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로 인구 크기의 증가에 비롯한 것

〈표 1〉 경제활동인구의 연령분포

(단위 : 천명)

	연령	1980 경활인구	증감량				
			1980~85	1985~90	1990~95	1995~2000	1980~2000
전 체	15~19세	1,194	-481	-74	-197	7	-745
	20~24세	1,974	-106	142	184	-534	-314
	25~29세	1,849	661	153	162	-50	926
	30~34세	1,813	316	725	221	-338	924
	35~39세	1,789	188	311	861	112	1,472
	40~44세	1,757	2	358	323	813	1,496
	45~49세	1,526	161	155	142	467	925
	50~54세	1,033	215	409	-3	183	804
	55~59세	777	43	369	165	25	602
	60세이상	720	162	400	454	412	1,428
	전 체	14,432	1,161	2,948	2,312	1,097	7,518
남 자	15~19세	559	-245	-67	-72	46	-338
	20~24세	997	-158	-84	63	-223	-402
	25~29세	1,378	411	38	36	-165	320
	30~34세	1,302	181	437	186	-280	524
	35~39세	1,175	118	154	550	51	873
	40~44세	1,118	-18	209	172	476	839
	45~49세	936	103	74	118	213	508
	50~54세	617	142	242	18	150	552
	55~59세	476	-9	241	95	19	346
	60세이상	463	71	170	260	207	708
	전 체	9,021	596	1,414	1,426	494	3,930
여 자	15~19세	635	-236	-7	-125	-38	-406
	20~24세	977	52	226	121	-311	88
	25~29세	471	250	115	126	115	606
	30~34세	512	134	287	36	-58	399
	35~39세	615	70	156	312	60	598
	40~44세	639	20	149	151	337	657
	45~49세	590	58	81	24	254	417
	50~54세	416	73	167	-21	33	252
	55~59세	301	52	128	70	6	256
	60세이상	257	90	231	193	207	721
	전 체	5,413	563	1,533	887	605	3,588

자료: 통계청 DB(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표 2> 경제활동인구 변화의 요인분해(1980~2000)

연령	경제활동인구(천명)			변화량 분해				변화량 기여도	
	1980	2000	2000 ^s	순변화	인구요인	사회요인	총변화	인구요인	사회요인
	A	B	B ^s	C=B-A	D=B ^s -A	E=C-D	F= D + E	D ^p =D/F	E ^p =E/F
15~19세	1,194	449	1,142	-745	-52.0	-693.0	745.0	-7.0	-93.0
20~24세	1,974	1,660	1,832	-314	-141.6	-172.4	314.0	-45.1	-54.9
25~29세	1,849	2,775	2,503	926	653.9	272.1	926.0	70.6	29.4
30~34세	1,813	2,737	2,656	924	842.8	81.2	924.0	91.2	8.8
35~39세	1,789	3,261	3,171	1,472	1,381.7	90.3	1,472.0	93.9	6.1
40~44세	1,757	3,253	3,157	1,496	1,400.0	96.0	1,496.0	93.6	6.4
45~49세	1,526	2,451	2,353	925	827.3	97.7	925.0	89.4	10.6
50~54세	1,033	1,837	1,790	804	756.9	47.1	804.0	94.1	5.9
55~59세	777	1,379	1,344	602	567.2	34.9	602.0	94.2	5.8
60세이상	720	2,148	1,600	1,428	879.5	548.5	1,428.0	61.6	38.4
전 체	14,432	21,950	21,548	7,518	7,115.6	402.4	7,518.0	94.6	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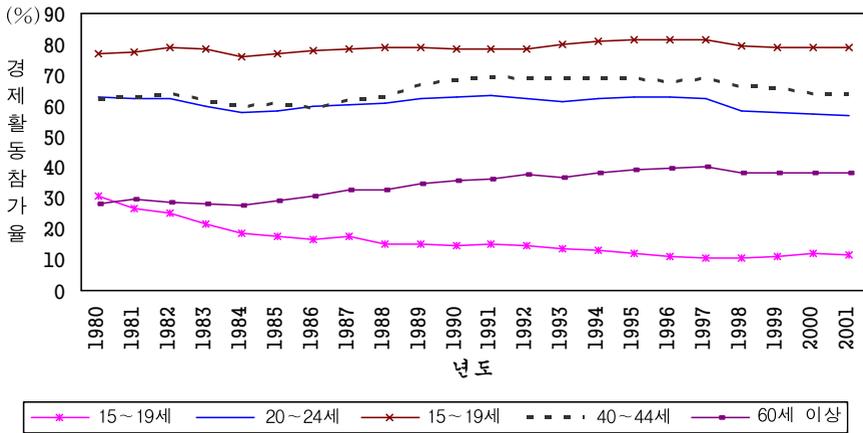
주: B^s는 1980년 경제활동참가율을 가정하였을 때 기대된 2000년도 경제활동인구 크기를 가리킴.

자료: 통계청 DB(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이다. 15~24세 연령집단에서 경제활동참여가 감소한 것은 교육기간의 지연 등으로 인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연령이 크게 연장된 때문이다. 또한 다른 연령집단과는 대조적으로 인구 요인도 경제활동참여량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지난 20년 동안 15~19세의 인구 크기는 계속해서 감소되어 왔으며 20~24세 인구 크기도 1990년 이후부터 감소하고 있다(통계청, KOSIS).

[그림 1]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경제활동참가율은 연령집단에 따라 다르게 변해 왔다. 가장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40~44세 연령집단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지난 20년간 별로 변하지 않았다. 경제활동참가율에 있어 가장 큰 변화를 보이는 집단은 15~19세 연령집단과 60세 이상 연령집단이다. 15~19세 연령집단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20~24세 연령집단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90년대 후반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60세 이상 연령집단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증가되어 왔다. 55~59세 연령집단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90년대 후반 이후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

〔그림 1〕 연령집단별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



자료: 통계청 DB(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경제활동참여 크기의 변화를 성별로 구분해 보면, 1980년에서 2000년 사이 남성 경제활동인구의 증가량의 84.4%가 인구 요인에 의해 설명된다(표 3). 연령별로 살펴보면, 15~24세의 연령집단에서는 인구 효과가 음으로 작용하고 있다. 15~19세 연령집단에서 경활인구 감소량의 11.6%가 인구 크기의 감소에 의해 설명된다. 20~24세 연령집단의 경활인구 감소량의 28.6%가 인구 크기 감소에 기초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25세 이상 남성의 경활인구는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로 인구 크기의 증가에 따른다. 인구 크기 증가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변화량을 제거하면, 잔여값이 대부분 음의 값을 갖는 것처럼 경제활동참가율은 1980년에서 2000년 사이 대부분의 연령집단에서 감소하였다. 특히 1980~85년과 1995~2000년 사이에는 모든 연령집단에서 경제활동참가율이 감소하였다.

여성 경제활동인구는 지난 20년 동안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인구 요인 이외 경제활동참가율의 실질적인 상승에 기초하고 있다(표 4). 1980년에서 2000년 기간 동안 경활인구 변화량의 33.3%가 경제활동참가율의 상승 때문에 이루어졌다. 남성 경제활동참가율이 크게 감소하였던 1980년대 초반에도 일부 연령집단을 제외하면(15~19세 연령층과 35~39세, 그리고 50~54세를 제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증가하였다. 그리고 1985~90년 사이에는 20세 이상 모든 연령집단에서 경제활동참가율이 상승하였다. 이 시기 전체 여성 경제활동참가량 변화의 54.8%가 경제활동참가율의 실질적인 상승에 비롯하였다. 1990~95년 사이에는 20~29세, 35~44세, 그리고 60세 이상의

〈표 3〉 경제활동인구 변화의 요인 : 남성

연 령	1980~85		1985~90		1990~95		1995~2000		1980~2000	
	인구 요인	사회 요인	인구 요인	사회 요인	인구 요인	사회 요인	인구 요인	사회 요인	인구 요인	사회 요인
15~19세	10.9	-89.1	16.5	-83.5	-60.6	-39.4	4.5	95.5	-11.6	-88.4
20~24세	9.0	-91.0	-53.1	-46.9	74.8	-25.2	-67.4	-32.6	-28.6	-71.4
25~29세	85.6	-14.4	44.8	55.2	63.9	-36.1	-27.7	-72.3	70.7	-29.3
30~34세	91.3	-8.7	96.5	3.5	98.8	-1.2	-88.4	-11.6	93.1	-6.9
35~39세	92.3	-7.7	95.3	4.7	100.0	0.0	73.5	-26.5	96.3	-3.7
40~44세	-23.3	-76.7	94.8	5.2	91.9	8.1	92.0	-8.0	96.1	-3.9
45~49세	90.2	-9.8	86.2	13.8	89.0	11.0	86.3	-13.7	95.1	-4.9
50~54세	88.5	-11.5	88.6	11.4	56.1	43.9	86.4	-13.6	97.0	-3.0
55~59세	30.8	-69.2	77.9	22.1	96.0	4.0	56.3	-43.7	94.0	-6.0
60세 이상	87.7	-12.3	53.0	47.0	70.9	29.1	73.8	-26.2	85.9	14.1
전 체	65.8	-34.2	92.8	7.2	99.7	0.3	66.5	-33.5	84.4	-15.6

자료: 통계청 DB(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표 4〉 경제활동인구 변화의 요인 : 여성

연 령	1980~85		1985~90		1990~95		1995~2000		1980~2000	
	인구 요인	사회 요인	인구 요인	사회 요인	인구 요인	사회 요인	인구 요인	사회 요인	인구 요인	사회 요인
15~19세	5.8	-94.2	46.3	-53.7	-37.9	-62.1	-5.1	-94.9	-1.5	-98.5
20~24세	43.0	57.0	18.4	81.6	73.8	26.2	-70.3	-29.7	-23.9	76.1
25~29세	69.0	31.0	-10.8	89.2	17.1	82.9	-20.6	79.4	24.1	75.9
30~34세	68.5	31.5	61.0	39.0	65.2	-34.8	-80.9	19.1	63.9	36.1
35~39세	95.8	-4.2	53.3	46.7	91.8	8.2	96.3	-3.7	79.5	20.5
40~44세	14.2	85.8	78.0	22.0	49.0	51.0	88.1	-11.9	79.1	20.9
45~49세	63.6	36.4	33.9	66.1	63.0	-37.0	78.3	21.7	72.6	27.4
50~54세	86.2	-13.8	50.5	49.5	-12.4	-87.6	65.3	-34.7	93.7	6.3
55~59세	85.7	14.3	50.6	49.4	99.1	-0.9	53.6	-46.4	80.4	19.6
60세 이상	53.4	46.6	31.6	68.4	65.7	34.3	85.7	14.3	41.3	58.7
전 체	105.6	-5.6	45.2	54.8	85.0	15.0	99.8	-0.2	66.7	33.3

주: 인구 요인은 인구 크기의 변화를, 사회 요인은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를 가리킴.

자료: 통계청 DB(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연령집단에서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하였다. IMF 환란 이후 경기침체 시기인 1995~2000년 사이에서도 25~29세, 60세 이상 여성 연령집단에서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Ⅲ. 노동시장의 고령화와 고연령층 취업률의 변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경제활동인구의 증감 정도는 연령집단에 따라 차이가 존재한다. 그 결과, 전체 경제활동인구에 대한 각 연령집단의 상대적 기여도도 변화되어 왔다. <표 5>에서 관찰할 수 있듯이, 전체 경활인구 중 15~39세의 청장년층의 구성비는 남녀 모두에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그런데 55세 이상 고연령층의 경제활동참여 구성비

<표 5> 경제활동참여 인구의 연령구성비의 변화

(단위 : 천명, %)

	연령	1980	1985	1990	1995	2000
남자	15~39세	5,411	5,718	6,196	6,959	6,388
	40~54세	2,671	2,898	3,423	3,731	4,570
	55세 이상	939	1,001	1,412	1,767	1,993
	전체	9,021	9,617	11,031	12,457	12,951
	<구성비>					
	15~39세	60.0	59.5	56.2	55.9	49.3
	40~54세	29.6	30.1	31.0	30.0	35.3
	55세 이상	10.4	10.4	12.8	14.2	15.4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여자	15~39세	3,210	3,480	4,257	4,727
40~54세		1,645	1,796	2,193	2,347	2,971
55세 이상		558	700	1,059	1,322	1,535
전체		5,413	5,976	7,509	8,396	9,001
<구성비>						
15~39세		59.3	58.2	56.7	56.3	49.9
40~54세		30.4	30.1	29.2	28.0	33.0
55세 이상		10.3	11.7	14.1	15.7	17.1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 DB(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는 증가하고 있다. 1980년 전체 남자 경제활동인구 중 5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0.4%이었지만 2000년에는 15.4%로 증가하였다. 여성 경제활동인구 중 5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같은 기간에 10.3%에서 17.1%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고연령층의 상대적 경제활동 기여도가 증가한 것은 무엇보다 노인인구 구성의 상대적·절대적 비중이 증가한 결과 경제활동인구에 대한 고연령층의 상대적 비중이 커진 때문이다. 또한 고연령층 취업률의 변화도 고연령층 노동력의 기여도 변화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표 6>은 「인구 및 주택 총조사」 2% 표본을 이용하여 1975년에서 2000년까지 55세 이상 고연령층의 취업률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고 있다. 여기서 계산한 취업률은 해당 연령집단의 전체 인구에 대하여 취업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로, 취업률의 공식 정의인 경제활동인구에 대한 취업자의 비율과는 차이가 있음을 지적해 둔다. 표에서 흥미롭게 관찰할 수 있듯이, 고연령층 취업률은 성·연령에 따라 그 변화 방향이나 크기가 다르게 나타난다. 55세 이상 고연령층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취업률은 1975년 39.5%에서 이후 약간의 증감을 반복하면서 1995년에는 42.1%로 증가하였다가 2000년에는 38.8%로 다시 감소하였다. 55세 이상 남성의 취업률은 1975년 60%에서 약간 증감을 반복하다가 1995년에는 60.5%, 그리고 2000년에는 53.9%로 다소 크게 떨어졌다. 한편 55세 이상 여성 고연령층의 취업률은 1975년 24.5%에서 2000년 27.4%로 증가하였다.

55세 이상 고연령층의 취업률을 연령집단별로 좀더 세분하여 살펴보자. 남성의 경우, 55~59세 연령집단의 취업률은 1980년부터 1995년까지는 증가 경향을 보이지만 2000년에 이르러 크게 감소하였다. 60~64세, 그리고 65~69세 연령집단의 취업률도 비슷한 모습의 증감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1995년까지는 취업률이 그 이전 수준과 비슷하거나 약간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2000년에는 취업률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이는 50대 후반과 흔히 전기 노인이라 칭해지는 60대 고연령층의 취업기회가 IMF 위기 상황 속에서 크게 제약되었음을 시사한다. 한편 70세 이상 남성의 취업률은 1980년 이후 2000년까지 계속해서 증가되어 왔다.

여성 고연령층의 경우 55~59세의 취업률은 1985년 39.7%에서 1995년 42.1%까지 증가하였지만 2000년 38.8%로 감소하였다. 60~64세의 취업률은 1990년까지 다소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2000년 시점에서도 그 취업률로 별로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 65세 이상 연령집단에서는 1980년에서 2000년 기간 사이 취업률이 계속해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65세 이상(여성) 혹은 70세 이상(남성) 연령집단의 취업률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과거부터 농어업에 종사하였던 고연령층과 함께 조기정년

〈표 6〉 55세 이상 고연령층의 성별·연령별 취업률

(단위 : %)

	연 령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전 체	15~54세 이하	60.2	52.1	50.2	52.0	56.3	55.8
	55세 이상	39.5	37.4	38.7	37.7	42.1	38.8
	55~59세	62.4	55.0	56.9	56.8	60.2	55.1
	60~64세	45.8	43.5	45.6	42.6	49.4	45.9
	65~69세	29.5	31.2	32.8	31.4	35.6	36.6
	70~74세	13.4	17.4	19.5	19.3	24.8	25.4
	75~79세	6.8	9.9	10.1	10.6	15.4	17.1
	80~84세	2.5	4.4	4.1	4.9	7.4	9.3
	85세 이상	2.0	2.5	1.8	1.9	2.8	3.1
남 성	15~54세 이하	78.2	70.8	68.4	70.6	74.6	71.2
	55세 이상	60.0	58.8	59.8	57.5	60.5	53.9
	55~59세	82.5	76.4	78.3	77.9	80.0	72.2
	60~64세	68.1	65.4	66.2	60.3	65.7	58.2
	65~69세	47.1	51.0	52.0	48.4	50.1	46.9
	70~74세	24.0	32.4	36.4	33.6	38.0	36.4
	75~79세	13.3	19.7	21.8	21.5	27.5	29.3
	80~84세	7.1	10.5	11.1	10.5	15.8	18.1
	85세 이상	5.5	5.5	4.9	5.3	6.6	7.7
여 성	15~54세 이하	43.0	34.3	32.4	33.8	38.5	40.9
	55세 이상	24.5	22.0	23.8	23.7	28.5	27.4
	55~59세	44.5	36.7	39.7	38.5	42.1	38.8
	60~64세	27.8	26.1	29.4	29.3	36.2	35.1
	65~69세	17.0	17.0	18.6	19.6	26.1	28.9
	70~74세	7.3	8.3	8.7	10.1	16.5	18.8
	75~79세	3.7	5.4	4.3	5.2	8.8	11.0
	80~84세	0.5	2.1	1.7	2.7	3.9	5.4
	85세 이상	0.9	1.7	1.1	1.1	1.7	1.7

주 : 취업률=(해당 연령층의 취업자/해당 연령층의 전체인구)×100.

자료 : 『인구 및 주택 총조사』 2% 표본 . 2000년 센서스 잠정 자료에 기초하여 최종 보고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표 7〉 55세 이상 고연령층 취업자의 업종분포

(단위: %)

산 업		55세 이상	55~59	60~64	65~69	70~74	75~79	80~84	85세 이상
1980	농어림	74.0	66.8	77.7	83.6	83.8	88.8	87.1	92.1
	광업	0.2	0.3	0.2	0.1	0.1	0.0	0.0	0.0
	제조업	4.1	5.3	3.5	2.4	2.1	1.6	3.0	0.0
	전기·가스·수도	0.0	0.1	0.0	0.0	0.0	0.0	0.8	0.0
	건설업	2.7	3.7	2.2	1.5	1.2	0.2	0.0	5.3
	도,소매·음식·숙박	10.7	13.0	9.8	7.2	8.3	4.5	6.8	0.0
	운수·창고·통신	1.0	1.5	0.8	0.4	0.3	0.0	0.0	0.0
	금융·부동산	2.1	2.3	2.0	1.6	1.8	0.9	0.0	0.0
	사회·개인서비스	5.2	7.0	3.8	3.2	2.5	4.0	2.3	2.6
	전 체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990	농어림	61.8	51.2	65.2	76.4	83.2	87.5	80.7	92.3
	광업	0.2	0.3	0.2	0.1	0.1	0.1	0.5	0.0
	제조업	7.3	9.7	6.4	4.0	2.8	2.4	2.5	0.0
	전기·가스·수도	0.1	0.2	0.0	0.0	0.1	0.0	0.0	0.0
	건설업	4.3	6.1	3.6	1.8	1.0	0.4	1.0	0.0
	도,소매·음식·숙박	11.7	13.9	11.4	8.7	6.7	4.6	5.1	5.1
	운수·창고·통신	1.8	2.7	1.3	0.5	0.2	0.5	1.0	0.0
	금융·부동산	3.6	4.1	3.6	2.9	2.4	1.5	0.0	0.0
	사회·개인서비스	9.2	11.7	8.3	5.7	3.4	3.0	9.1	2.6
	전 체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2000	농어림	52.1	31.8	52.7	71.6	81.3	84.6	83.1	86.4
	광업	0.1	0.2	0.1	0.1	0.0	0.0	0.0	0.0
	제조업	8.1	12.5	7.3	4.3	2.7	1.5	1.4	0.9
	전기·가스·수도	0.1	0.2	0.1	0.0	0.0	0.1	0.0	0.0
	건설업	4.3	6.9	4.2	1.6	0.4	0.2	0.2	0.0
	도,소매·음식·숙박	14.9	19.9	14.9	9.9	7.2	6.4	8.3	3.6
	운수·창고·통신	3.5	5.6	3.4	1.6	0.7	0.3	0.0	0.0
	금융·부동산	7.6	9.1	8.9	5.8	3.4	2.7	1.2	4.5
	사회·개인서비스	9.3	13.8	8.3	5.0	4.2	4.1	5.8	4.5
	전 체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인구 및 주택 총조사』 2% 표본.

이후 노동시장에 재진입한 고연령층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추측된다.

고연령층이 주로 종사하는 업종은 농어림이다(표 7). 55세 이상 취업자 중 농어림에 종사하는 취업자의 비율은 1980년 74%이었으며, 1990년에는 61.8%, 2000년에는 52.1%로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고연령 취업자의 과반수가 농어림에 종사하고 있다. 비농업 부문으로서는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영세규모의 3차 산업에 주로 종사하고 있다. 직업분포에서도 농어업 관련 종사자의 비율이 지배적이며, 비농업 부문에서는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최근으로 올수록 증가하고 있다(표 8).

<표 8> 55세 이상 고연령층 취업자의 직업분포

(단위 : %)

	직업	55세 이상	55~59	60~64	65~69	70~74	75~79	80~84	85세 이상
1980	전문·기술직	2.5	3.17	2.01	1.63	1.17	3.07	2.27	0.00
	행정·관리직	1.1	1.34	0.96	0.86	0.70	0.00	0.76	0.00
	사무직	1.7	2.52	1.18	0.68	0.41	0.72	0.76	0.00
	판매·서비스직	13.7	16.57	12.51	9.22	10.63	5.42	6.82	0.00
	농어림	73.9	66.68	77.67	83.59	83.76	88.99	87.12	91.89
	생산·단순노무직	7.1	9.72	5.67	4.01	3.33	1.81	2.27	8.11
	전체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990	전문·기술직	4.3	4.84	4.25	2.47	1.89	2.68	3.16	0.00
	행정·관리직	2.3	2.70	2.12	1.65	1.05	0.89	0.00	0.00
	사무직	4.0	5.67	2.46	1.16	0.57	0.26	0.53	0.00
	판매·서비스직	17.1	19.72	15.51	11.79	8.79	5.61	8.42	2.86
	농어림	61.5	51.62	67.14	77.82	84.92	88.65	83.68	91.43
	생산·단순노무직	10.7	15.45	8.52	5.11	2.77	1.91	4.21	5.71
	전체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2000	전문·기술직	5.5	7.7	5.2	3.3	2.6	3.3	3.7	5.5
	행정·관리직	4.0	5.9	3.9	2.2	1.5	1.3	1.1	0.9
	사무직	2.7	4.2	2.4	1.4	1.4	0.8	0.9	0.0
	판매·서비스직	14.6	19.9	14.5	9.6	7.0	6.0	8.3	2.7
	농어림	51.3	31.2	52.0	70.7	80.2	83.5	82.1	84.5
	생산·단순노무직	21.8	31.1	22.1	12.9	7.3	5.1	4.0	6.4
	전체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인구 및 주택 총조사』 2% 표본.

IV. 업종·직종에서의 연령분리현상

그렇다면, 고연령층이 종사하는 산업과 직업은 다른 연령층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산업구조의 커다란 변화 과정에서 청장년층과 고연령층의 업종분포는 유사한 방향으로 변화되어 왔다(표 9). 전체적으로 농어림 비율이 감소되어 왔으며, 제조업의 비율은 1990년대 중후반부터 감소하고 있다. 도소매·음식·숙박, 금융·부동산, 사회·개인서비스 등 서비스 부문의 비율은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청장년층, 고연령층의 취업구조가 유사한 방향으로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 연령집단의 업종분포의 대조는 지속되고 있다. 1980년에서 2000년 전 기간을 통해 농어림에 종사하는 취업자의 비율은 고연령층에서 그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청장년층 취업자의 구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제조업, 도소매 서비스업에서도 연령분리가 지속되고 있다.

〈표 9〉 청장년층과 고연령층 취업자의 업종분포

	1980		1985		1990		1995		2000	
	15~54	55세 이상								
농어림	34.1	74.0	26.9	70.8	15.8	61.8	9.7	55.0	7.0	52.1
광업	0.7	0.2	0.7	0.1	0.5	0.2	0.2	0.2	0.1	0.1
제조업	22.3	4.1	23.6	4.5	28.8	7.3	25.6	8.6	23.0	8.1
전기·가스·수도	0.4	0.0	0.6	0.1	0.6	0.1	0.5	0.2	0.5	0.1
건설업	5.4	2.7	6.8	3.5	7.3	4.3	9.1	5.3	7.4	4.3
도소매·음식·숙박	17.0	10.7	18.6	10.9	20.8	11.7	24.8	13.2	24.9	14.9
운수·창고·통신	4.7	1.0	5.7	1.4	5.4	1.8	5.8	2.8	6.5	3.5
금융·부동산	2.3	2.1	3.3	2.4	5.2	3.6	8.2	5.8	10.2	7.6
사회·개인서비스	13.1	5.2	13.8	6.3	15.6	9.2	16.1	9.0	20.4	9.3
전 체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 『인구 및 주택 총조사』 2% 표본.

직업분포에 있어서도 연령분리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직종에 따라 그 분리 정도에 차이가 존재한다(표 10). 전문·기술직에서의 연령분리 정도는 심화되고 있다. 1980년 전문·기술직에 종사하는 취업자의 비율은 15~54세 취업자의 4.8%, 55세 이상 취업자의 2.5%를 차지하였다. 그런데 전문기술직 취업자의 구성비의 연령 차이는 최근으로 올수록 커지고 있다. 2000년도 전문·기술직 종사자의 비율은 15~54세 취업자의 18.3%, 55세 이상 취업자의 5.5%를 구성하고 있다. 연령 차이가 가장 적은 직종은 행정·관리직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무직 종사자의 비율도 두 연령집단에서 차이가 크며, 그 차이는 최근으로 올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농어업 종사자의 비율은 고연령층에서 월등히 크며, 그 차이가 지속되고 있다. 흥미롭게도 생산·단순노무직에서는 연령분리현상은 완화되어 왔다. 1980년 당시만 해도 생산·단순노무직 종사자의 비율은 15~54세에서 훨씬 높게 나타났지만, 이후 고연령층 집단에서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연령집단별 취업률 차이가 줄어든 것이다.

<표 10> 청장년층과 고연령층 취업자의 직업분포

	1980		1985		1990		1995		2000	
	15~54	55세 이상								
전문·기술직	4.8	2.5	6.6	3.6	8.2	4.3	18.5	6.8	18.3	5.5
행정·관리직	1.2	1.1	1.8	1.8	2.3	2.3	4.3	4.0	4.7	4.0
사무직	10.3	1.7	13.3	2.0	17.1	4.0	13.1	2.2	16.3	2.7
판매·서비스직	20.5	13.7	22.4	14.6	24.3	17.1	21.3	12.6	23.8	14.6
농어업	34.3	73.9	26.7	70.7	15.6	61.5	9.5	54.3	6.7	51.3
생산·단순노무직	28.9	7.1	29.2	7.3	32.4	10.7	33.3	20.2	30.1	21.8
전 체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 『인구 및 주택 총조사』 2% 표본.

연령집단별 직업분포의 차이를 좀더 분명하게 고찰하기 위해서 직종분리지수를 계산해 보았다(표 11). 분리지수는 두 가지로 측정하였는데, 먼저 R은 두 연령집단의 취업자비의 평균 편차로서, 청장년층 취업자 대비 고연령층 취업자 비의 평균값 $(1/I \sum_{i=1}^I \ln(F_i/M_i))$ 과 각 직업에서 취업자의 연령비의 차이(편차)를 평균화한 값이다.

취업자의 연령구성이 모든 직종에서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면 R값은 0에 가까울 것이다. 반대로, R값이 클수록 연령집단의 직종분리가 심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 하나의 분리지수 R_i 는 개별 직업 i에서 취업자의 연령비가 평균비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를 나타내는 값이다. 음의 값은 평균 분포에 비하여 고연령층의 비율이 과소 반영된 경우를 가리키며, 양의 값은 평균 분포에 비하여 고연령층의 비율이 과대 반영된 경우를 가리킨다. 음·양의 절대값이 클수록 그 직업의 연령구성이 한 방향으로 편향된 정도가 심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먼저 전체 직업에서, 취업자의 연령구성비의 평균 편차값(R)을 살펴보면, 그 값이 최근으로 올수록 커지고 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연령집단의 직업분리가 강화되었음을

<표 11> 연령별 직종분리지수

		분리지수		직업별 분리지수(Ri)					
		R	exp(R)	전문·기술	행정·관리	사무직	판매·서비스	농어림	생산·단순노무직
전체	1980	0.70	2.01	-0.08	0.54	-1.21	0.19	1.36	-0.80
	1985	0.74	2.10	-0.07	0.58	-1.33	0.13	1.58	-0.83
	1990	0.70	2.01	-0.27	0.35	-1.08	0.01	1.74	-0.74
	1995	0.80	2.22	-0.65	0.28	-1.43	-0.17	2.11	-0.14
	2000	0.84	2.31	-0.88	0.16	-1.47	-0.17	2.35	0.00
남자	1980	0.61	1.84	0.00	0.41	-1.00	0.13	1.30	-0.84
	1985	0.68	1.98	0.06	0.45	-1.13	0.08	1.46	-0.91
	1990	0.62	1.85	-0.07	0.24	-0.85	-0.03	1.61	-0.89
	1995	0.70	2.02	-0.51	0.16	-1.01	-0.27	1.95	-0.32
	2000	0.74	2.09	-0.66	0.07	-1.17	-0.20	2.15	-0.19
여자	1980	1.12	3.08	-0.22	0.56	-2.61	0.81	2.00	-0.55
	1985	1.19	3.29	-0.41	0.92	-2.69	0.60	2.05	-0.47
	1990	1.02	2.78	-0.70	0.31	-2.28	0.46	2.31	-0.09
	1995	1.31	3.71	-1.21	0.49	-2.72	0.29	2.64	0.51
	2000	1.24	3.46	-1.58	0.21	-2.14	0.13	2.81	0.57

자료 : 『인구 및 주택 총조사』 2% 표본.

$$R = 1/I \sum_{i=1}^I | \ln(F_i / M_i) - [1/I \sum_{i=1}^I \ln(F_i / M_i)] |$$

I : 직업범주수, F_i : i직업에 종사하는 55세 이상 인구, M_i : i직업에 종사하는 15~54세 인구

자료 : 『인구 및 주택 총조사』 2% 표본.

V. 맺음말

정리하자면, 1980~2000년의 다소 최근의 기간에서도 경제활동인구의 인구구성과 취업자의 산업, 직업구조는 크게 변하였다. 경제활동인구는 이 시기 동안 완만하게 증가하였는데 그 주된 요인이 남자의 경우에는 인구 크기의 성장에 따른다. 그러나 여성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한 것은 인구 요인 이외에도 경제활동참가율의 실질적 증가 요인이 작용하였다.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가장 크게 향상된 시기는 1985~90년대 초반으로서, 이 시기 경제활동참가율은 5% 이상 상승하였다.

경제활동인구 중 고연령층 노동력의 특징과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 55세 이상 고연령층의 상대적 구성비가 증가하고 있다. 고연령층의 경제활동참여 기여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고연령층 인구 크기가 다른 집단보다 빨리 성장한 결과에 비롯한다.

다음으로, 고연령층 취업률 변화에 집단내 차이가 존재한다. 55~59세 인구의 취업률은 증감 정도가 크지 않은 반면, 65세 이상 연령집단에서의 취업률은 지난 20년 기간 동안 크게 증가되어 왔다. 65세 이상 인구의 취업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과거부터 농어업에 종사하였던 고연령층과 함께 조기정년 이후 노동시장에 재진입한 고연령층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또한 가족으로부터의 부양기회가 약화되고,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함으로써 노년기 노동의 필요성이 증대하였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청장년층, 고연령층 두 연령집단의 취업자가 종사하는 산업, 직업분포의 차이가 여전히 심한 특징을 지적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고연령층의 비율이 큰 농어업에는 고연령층이 계속해서 과대 반영되어 있는 반면, 전문기술직에서는 최근으로 올수록 젊은층의 집중현상이 강화되고 있다. 전체 취업자 중 생산·단순노무직이나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율은 감소하고 있는데, 청장년층에서는 그 감소가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고연령층에서는 그 속도가 완만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난 20년간의 산업, 직업구조의 변화 과정에서 업종·직종에서의 연령분리현상은 유지 혹은 강화되었다고 요약할 수 있다. 정보·기술부문의 확장에 따른 전문직의 확대는 젊은 연령층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고연령층에게 열려 있는 업종은

전통적 농업부문이나 임시·단순노무직에 집중되어 왔다. 왜 노동시장의 연령분리현상이 심화되었는가? 한편으로, 급속하게 발전하는 전문지식과 기술 요구에 고연령층 노동력이 적응하지 못한 때문일 수 있다. 또한 노동시장의 연령차별주의 효과를 간과할 수 없다. 주지의 사실이듯이, 많은 사회에서 노년 노동정책은 축소정책이 지배적이었다. 노동기회의 연령차별주의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서구 여러 사회에서도 고연령층의 조기 은퇴현상이 지배적이었던 것은 단순히 이들 사회의 발달된 사회보험의 혜택 때문만은 아니다. 고연령층 노동기회에 대한 구조적 제약은 고용, 훈련, 재고용에서 다양한 차별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 사회에는 은퇴 후의 적절한 소득보장제도가 아직 성숙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노년노동의 축소정책은 노년기 빈곤을 조성할 위험이 크다. 현재 고령층에게 열려 있는 취업기회는 비정규직이나 임시방편적인 공공정책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서, 고령층의 취업증진과 소득안정에 별로 유효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생산성 유지와 실업의 대책으로서 활용되고 있는 조기정년제가 과연 어느 정도 경제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으며 또한 인구의 다수가 노년층으로 구성되는 고령사회에서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제기된다. 실업대책으로서 조기정년제도는 취업에의 욕구가 강하고 사회적으로 유효한 노동력 인구를 당사자의 취업욕구와는 상관없이 노동시장에서 일괄적으로 배제함으로써 실업위기를 세대간에 전이시키는 효과가 크다.

고령화사회에서 생산활동인구의 부양부담을 줄이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제도나 통념상으로 비경제활동인구로 규정된 고연령층의 노동력을 노동시장에 재도입하는 방안이 크게 확대되어야 한다. 건강하고, 우수한 노동 경력을 가진 고연령층이 은퇴 이후 20~30년의 시기를 ‘무역할의 역할’로 채우는 것은 사회는 물론 개인 자신에게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고연령층의 노동참여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고연령층의 고용능력(employability)이 강화되어야 하고, 고연령층 노동비용의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임금, 퇴직제도의 조정이 필요하다. 서구 선진사회에서는 이미 1990년대부터 노년 노동확대정책 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연령층의 경제활동을 제약했던 노동시장 내의 제도적 규제들을 폐지하고, 고연령층의 고용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재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다. 전직과 노동이동의 기회비용을 줄이고 노동의 유연화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프로그램들을 실험하고 있다. 또한 사회보장제도도 보다 노동 연계성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변모하고 있다.

참고문헌

- 노동부. 『노동통계연감』. 노동부, 1998.
- 박경숙. 「중장년기 종사상 지위와 은퇴과정의 다양성」. 한국노동경제학회, 『노동경제논집』 24권 1호(2001): 177-205.
- _____. 「노동시장의 연령차별구조와 고연령층의 취업생활」. 『노동경제논집』 23권 특별호(2000): 241-253.
- 日本總務處 『老人の生活と意識』. 中央法規 1997.
- 정경희 외. 『199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 한국노동연구원. “2000년 노동시장 동향.” 한국노동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li.re.kr>), 2000.
- Charles, Maria and David B. Grusky. “Models for Describing the Underlying Structures of Sex Segrega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0/(4) (1995): 931-971.
- Clogg, Clifford. “Standardization and Decomposition of Group Differences”. in Donald Bogue, Eduardo Arriago, Douglas Anderton, George Rumsey. eds. *Readings in Population Research Methodology I*(1993): 6-1~6-69. UNFPA.